

박 인 상

한국노총 위원장

새 밀레니엄을 맞아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의 신년구상과 한국노총의 사업방향을 들어보았다. 「노동사회」는 99년 10월호에 단행호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실은 바 있다.

대 담 :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일 시 : 2000. 1. 13(목)

장 소 : 한국노총 위원장실

작년 말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 등 예년과는 다르게 한국노총의 투쟁이 성과 있게 진행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2월 투쟁은 계통을 타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총·산별·지역·단위노조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움직였고, 이것이 투쟁 동력이 되었습니다. 현장중심이라는 원칙 없이 그냥 밀고가면 바닥이 깊을 끗을 끗잖습니까. 바닥의 투쟁동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총 집행부와 사무국이 발로 뛰었고, 산별 연맹 지역본부와 지역도론 및 현장순회를 함께 조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노총에서 투쟁지침을 내려보

내고 밑에서는 내팽개쳤다면, 이번에는 투쟁지침을 산별이 중앙위원회나 대표자회의에서 거르고, 지역에서는 지역본부가 중심이 되어 토론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확실한 성과를 챙기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우리도 투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노총 조직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은 것이 이번 투쟁의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당과의 정책연합을 피기해서 정부 여당에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던 것은 세 후보 가운데 국민회의의 노동정책이 가장 친노동적이었기 때문이었습



대담중인 박인상 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이원보 소장(왼쪽)

니다. 하지만 집권 후 정책실천 과정에서 기대에 못미쳤습니다. 정책연합이란 실현가능한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노총은 파기한 것입니다.

하여튼 정책연합 파기는 투쟁의 촉발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조합원들도 노총이 다른 의도가 없고 확 털고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세운 원칙과 기준을 투쟁 과정에서 그대로 밀어부쳤습니다.

박인상 집행부 출범 이후 한국노총이 이전에 비해 많이 개혁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무엇이 개혁되었고 어떤 게 달라졌는지 소개해 주시죠.

아직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의존이 자주성을 해쳐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야당과 정책연합을 하고, 여당이 되었지만 연합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성 문제인데요. 민주주의는 토론의 장입니다. 저는 지시로 일이 돌아가는 걸 싫어합니다.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비판도 좋으니 활발하게 토론하자고 말합니다. 그 결과 노총 안에 토론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투쟁성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잡았습니다. 제가 위원장 된 다음 파업을 네 다섯 차례 시도했습니다. 96년 초 총파업 당시에는 조직이 녹슬어 파업을 치령해도 잘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현장을 뛰어다니고, 지역토론 붙이고, 산별연



12월 투쟁은 계통을 타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총·산별·지역·단위노조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움직였고

이것이 투쟁

동력이 되었습니다.

맹을 주동하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수백명 집회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수만명 모으는 것도 가능할만큼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산별과 지역조직의 간부들이 애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안하면 오히려 조합원들로부터 반발이 생깁니다. 그만큼 성장한거죠.

70년대 초와 말, 87년에 노총이 위기에 처했고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만.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의식과 관행의 변화는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도력에 의존한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 다. 제도와 구조의 개혁은 얼마나 진전되었 다고 보십니까?

이전과 비교한다면, 중앙위원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대의원대회 밖에 없다시피했는데, 지금은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합니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산별이 힘을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98년부터인가요. 한국노총의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기구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되었고, 그것이 21세기위원회라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요?

21세기위원회 이야기는 제작년부터 있었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노총이 부딪히고 있는 도전들을 검토하고 문

제점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에 한국노총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야 하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르고도 고치고, 한국노총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작업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개혁과 서민대중의 요구를 정책에 담아내야 합니다.

작년 말에는 투쟁 때문에 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늦어도 2001년 대의원대회에서 완결할 계획입니다. 기획단에 산별은 물론 지역본부와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킬 것입니다. 현장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도 공모할 계획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사회개혁 이슈 가운데 두 노총에서 입장 차이를 보였던 문제가 의보통합이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의보통합을 여전히 반대하는지요?

우리 입장은 의보통합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건을 먼저 만들어 놓고 통합하는자는 겁니다. 7월 1일부터 통합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지금 정부의 구상은 임금총액에서 일정비율로 하자는 전데 이리면 봉급쟁이의 부담이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부담도 커집니다.

정부는 제대로 돈을 대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의보는 적자가 가중되고 있고, 이렇게 가다간 국민연금처럼 부실해집니다. 부담 높이고, 혜택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돈을 더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20%대에 머

물고 있는 자영업자소득과 액률을 높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금융소득과 세를 포함한 세제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전제되어야 통합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도 우리 입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의보통합 문제로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진 않았습니까?

웬만한 단체와의 연대에는 거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보 문제 말고는 그리 소원해질 사안도 없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충정만 이해된다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에서 그리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한국노총의 주요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금년은 작년 12월 투쟁의 연속선 위에 있습니다. 5대 요구사항, 즉 노동시간 단축,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전임자임금 자율 보장,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전력분할 매각·해외매각 저지에 주력할 겁니다.

2000년도는 여러 가지로 노동운동의 앞날에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크게는 IMF 경제위기로 인한 조합원들과 노동자들의 고통을 극복해야 합니다. 당장을 통해 임투는 공세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노총 중심의 공동투쟁 체제

를 실질적으로 확립하여 금년을 공무원 원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5월 충파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은 이러한 시장만능주의를 저지하고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를 저지하는데 충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4월 총선을 계기로 노동세력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개혁세력을 결집해내고, 기존의 잘못된 정치구조와 풍토를 타파해야 합니다. 지금 시민운동이 뛸이고 있는 낙선운동은 이러한 흐름에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중소영세사업장과 공무원 등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화와 산별노조로의 조직체계 전환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산별노조 건설 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집행권과 교섭권을 기업별노조가 거머쥐고 있는 관행의 뿌리가 여전히 깊습니다. 큰 조직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우선 지역 차원에서 묶어내야 됩니다. 산별

연맹도 이전에 비해 많이 변했습니다. 뭔가 바꿔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크죠. 금융 노련이 올해 산별노조로 전환할 겁니다. 자동차나 택시는 지역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고요. 화학과 금속은 내부 논의 중입니다.

산별노조로의 조직 전환을 통해서 임금인상에 차중되어 있는 노조의 요구를 사회개혁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투쟁과제 가운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전임자 임금 문제의 원칙은 자율성입니다. 이 문제는 기업별노조가 복수화되는 것 때문에 사용자가 우려하는 측면이 큽니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교섭권 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리될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몇명은 되고 몇명은 안되고 하는 것은 노조자율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물론 재정 자율성을 찾기 위한 우리 내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기업별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문제를 빅딜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노동운동의 원칙에 맞지 않고 국제기구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노동운동 진영이 경기회복과 총선이 맞물리면서 수세에서 공세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마다 보면 정부와 부딪힐텐데 노정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큰 방향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조직끼리 연대하고 통합하는
것은 순리입니다.

우리는 민주노총과의 연대와
통합을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정치인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합니다만, 정권 내부를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수구세력과 연합하고 있어 노동관계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임단투와 총선 시기에 공세를 취할 때 민주노총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해야 되겠지요. 양 노총의 요구가 상당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정책은 신자유주의 기조에 서 있습니다. 이걸 틀어야 합니다. 여당 내부에 노동사회 정책을 짜는 곳이 없습니다. 응급조치만 하고 대통령 눈치보기로 급급합니다. 12월에 8일 동안 국민회의에서 농성을 했었는데, “왜 들어왔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당이 바닥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수구세력이 들

이았던 한나라당도 마찬가집니다. 올해 총선에서 정치권의 수구적인 정책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총선이 노동진영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노총이 민주노동당과 정책연합을 하면 어떨까 하는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총선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이 한나라당도 있고, 민주노동당도 있고, 장기표씨가 하는 벤처신당도 있다”고 말입니다.

우선 노동자 출신 후보를 지지할 겁니다. 그 다음은 친노동자 후보를 밀깁니다. 이렇게 보면 민주노동당도 제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민주노동당의 당선 가능성과 시기상조론을 들

어 제휴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거 민중당 당시 노총에도 자도부가 있었는데 결국 안되니까 노태우에게 갔다가 선거에서 끼여버렸습니다. 대중, 재정, 조직, 정책의 풍부한 토대에 기초해서 올바른 당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직은 민주노동당의 기반이 취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제휴 문제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후보를 내면 지역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부 지역 차원에서 소속 조합원이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

민주노총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큰 방향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차지에 있는 조직끼리 연대하고 통합하는 것은 순리입니다. 우리는 민주노총과의 연대와 통합을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양대 노총이 이렇게 갈려 있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정체의 차이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면 앞으로는 동질성을 획득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아직도 지방에서는 두 조직간의 틀이

깊습니다. 우선 미조직사업장 조직화, 초기업단위노조로 묶는 것, 공무원노조 같은 큰 틀에서 연대사업이 가능합니다. 사무총장이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해서 사회개혁투쟁 같은 큰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의 박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커서 박 위원장의 파워가 대단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번 기회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노총 안에 정계진출할 간부가 있습니까?

별씨 여당에 간 산별대표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간 사람들은 조직과 상의 없이 간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산별대표자는 한나라당으로 갑니다. 개인적인 선택이었지 조직적 논의를 거친 결과는 아닙니다.

정당으로부터 제의가 들어오면 공식기구를 통해 걸러 입장을 정리할 것입니다. 뒤에 앉아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공천자가 새끼이 되는지를 중앙 정치위원회같은 공식기구에서 검토해서 가능성은 따지겠습니다.

한국노총의 정책에 사회개혁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담겨있지만, 통일 문제는 비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 조직과의 교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북한 직총의 리

진수 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베트남노총과 중국노총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통일 사업을 위해서는 상호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정치적인 교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호방문, 중립지대 토론회, 스포츠, 국제 심포지움 같은 사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나라 노동조합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당이 노동조합에 우선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그쪽의 노조간부들도 철저합니다. 당과 노조, 국가와 노조와의 관계가 독립적인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또한 제도적인 개선도 뒤따라야 합니다. 리진수 위원장 만날 때도 통일원에 사전신고하고 갔습니다. 정부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려는 판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의 불필요한 조항도 없어야 합니다. 불고지죄 같은 것 말이지요.

한국노총 위원장 박인상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아도 그 이전의 활동이나 경력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59년 6월에 조선공사에 입사해, 64년 9월부터 노조에 참여했습니다. 69년 8월 임단투로 50일 파업에 들어갔는데 정부의 긴급조정 발동으로 10월 1일 체포되어 6개월 정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후 해고된 상태에서 지역노조에 참여하게 되죠. 부산의 노조 가운데 제가 만든 게

많습니다. 전두환 정권 들어서던 80년에 부산시협 사무국장을 맡았고, 85년 금속노련 위원장 선거에 나섰다 실패하고 88년 금속노련 위원장에 당선되었지요.

96년에 한국노총 위원장에 당선되었고, 작년 노총 역사상 처음으로 경선없이 치뤄진 선거에서 90% 이상의 지지로 재선되었습니다.

35년 이상 노동운동을 해오면서 체득하신 노동운동가의 원칙과 덕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저는 청심사달(淸心事達)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야 다른 일도 이뤄진다는 뜻이죠. 내 마음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자신을 냉혹하게 한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자기 관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아래 야 대중을 이끄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노동자의 소박한 마음을 읽어내야 노동운동의 참맛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기를 마치면 절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년 이후 계획은 어떠합니까?

남은 임기가 2년입니다. 정치권에는 안갑니다. 조합원들에게 노동운동에서의 한 노하우를 전해주고 난 다음 야인(野人)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